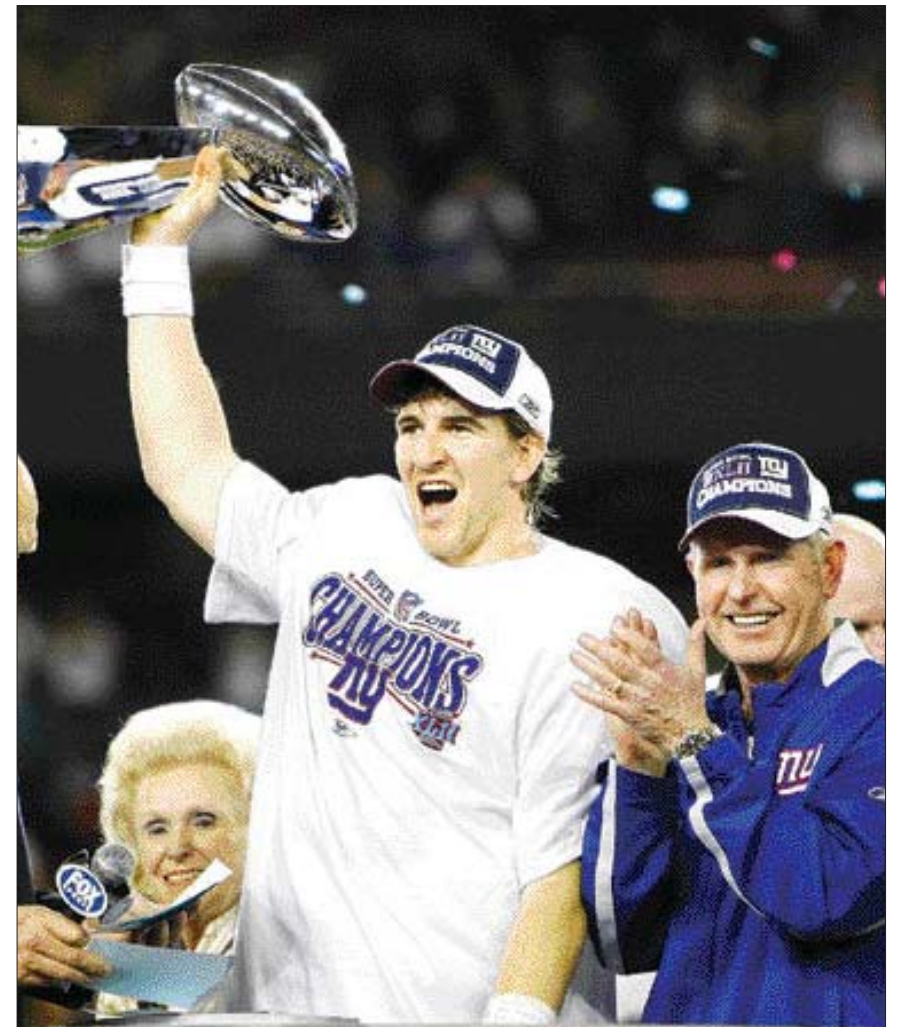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 3차 예선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4일 오후 파주 NFC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욕 자이언츠 쿼터백 엘리 매닝이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츠를 17-14로 꺾은 후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허정무호, 해외파 3인방에 'S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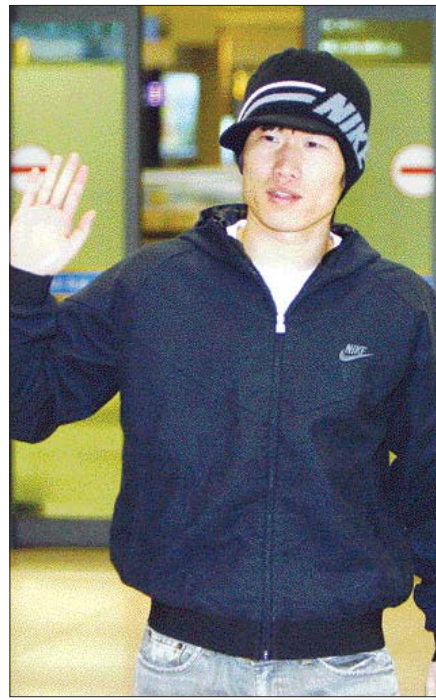
〈박지성·이영표·설기현〉

주전 잇단 부상 따른 공격진 붕괴 위기
6일 투르크메니스탄전 승리 견인 기대
박지성, 박주영과 '게임 메이커' 가능성

'공격진의 붕괴로 위기에 몰린 허정무호의 '구세주'는 누가 될 것인가?
설 연휴 첫날인 6일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 3차 예선 투르크메니스탄의 경기를 갖는다.

로 팀을 떠났다.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챙겨야 하는 허정무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3중사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영표(31·토트넘)·설기현(27·풀럼)에게 승리를 위한 중임을 맡겼다.

의 경기를 펼쳐겠다는 각오. '축구천재' 박주영(23·서울)도 국내파의 자존심을 걸고 승리를 향한 출격 준비를 끝냈다. 4-3-3의 밀그림이 그려질 경우 박주영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 '조커'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허 감독도 박주영에 대해 '언제든지 폭발할 잠재력이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 투르크메니스탄팀

전력 '들쭉날쭉'...FIFA 랭킹 128위

방콕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예선리그 A조 1차전이 열린 1998년 12월2일 태국 방콕의 나콘사완 경기장.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만났다. 양국 A대표팀 간 첫 맞대결이었다.

로 한국을 찾았다. 1991년 독립한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축구협회를 창설했고, 1994년 아시아축구연맹(AFC)과 국제축구연맹(FIFA)에 가입했다.



4일 오전 캐나다 퀘벡시티에서 벌어진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500m 결승에서 곽윤기(신목고)가 역주하고 있다. 곽윤기는 이날 41초403으로 골인해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호석·성시백·곽윤기 2관왕

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대회

이호석(경희대)과 성시백(연세대), 곽윤기(신목고)가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월드컵 5차 대회에서 나란히 2관왕에 올랐다.

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전날 1,500m와 1,000m 1차 레이스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던 이호석과 성시백은 계주 우승에 기여하면서 금메달을 추가, 2관왕이 됐다.

"베컴 방한때 특별대우 없다" 세마스포르츠마케팅

세계적인 미남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33·LA갤럭시)이 3월1일 FC서울과 친선경기를 치르기 위해 5박6일 동안 한국에 머물러도 호사스러운 특별 대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공동 롯데호텔에 별도의 스위트 룸을 마련해 줄 계획이었으나 구단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베컴은 팀 동료와 마찬가지로 일반 룸을 사용하게 된다.

골프 권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골프 권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골프 권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골프 권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뉴욕 '슈퍼볼' 차지

뉴잉글랜드 17-14 꺾고 18년만에 우승

NFL 챔피언 결정전

뉴욕 자이언츠가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츠의 전승 우승을 좌절시키고 18년 만에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되찾았다.

통산 세 번째로 슈퍼볼 정상을 밟았다. 뉴욕은 정규 시즌에서 10승6패를 거둬 와일드카드로 어렵사리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4전 전승의 파죽지세로 거함 뉴잉글랜드마저 넘어섰다.

우즈 역전승...2주 연속 우승

유럽프로골프 두바이메저트 클래식

세계골프 랭킹 1위 타이거 우즈(미국)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도 황제의 위용을 아낌없이 보여줬다.

유로. 2006년에 이은 이 대회 두번째 우승이자 지난 주 미프로골프(PGA) 투어 뷰익인비테이셔널 우승에 이은 올 시즌 2주 연속 우승이었다.

'코트 폭력' 김은경 사상 최고 중징계

남은 경기 출장 금지 WKBL 재정위 결정

여자프로농구 경기 도중 상대팀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김은경(25·우리은행)이 올 시즌 남은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됐다.

우리은행은 올 시즌 정규리그 8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만큼 김은경은 최소한 8경기 이상 코트에 나설 수 없게 돼 1999년 여자프로농구 출범 이후 최고 중징계를 받은 셈이 됐다.